

중국 개혁·개방기 엘리트 유형 변동*

— 통시 비교 접근

주 장 환**

I. 들어가며

II. 연구 설계

III. 개혁·개방기 중국 엘리트 변동에 대한 통시 비교 접근

IV. 나가며

I. 들어가며

정기적으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엘리트 변동과 정책 변화와의 상관관계는 직관적으로 매우 높다. 동시에 이를 증명할 사례들 역시 매우 많다.¹⁾ 그 가능성이 매우 낮은 국가들에서도 이를 증명할 사례들은 역시 존재한다. 경험적으로 가장 정권 교체 가능성이 낮은 국가로 평가되는 북한의 경우에도 최고 지도자의 변동으로 인한 정책 변화는 존재해왔다.²⁾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2024년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신대학교 중국학 교수 겸 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소장, 정치학, joojh@hs.ac.kr.

1) 대표적으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엘리트 변동으로 설명한 연구들이 있으며, 최신의 것들은 다음과 같다. 남재걸, 김재일, 「역대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정부 혁신 비교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6권 3호, 한국공공관리학회, 2022, pp.129-146; 이은숙,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교육: 쟁점과 과제」, 『통일전략』 제26권 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23, pp.81-110.

2) 이가영, 「김정은 시기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경향성 연구: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중

한편 관련 사례 연구들로 상당 정도 입증된 엘리트 변동과 정책 변화와의 경험적 상관관계를 이론화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 세부적인 동학(dynamics)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를 특정 엘리트 변동과 정책 변화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는 또 두 단계의 과정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엘리트 변동과 정책 변화의 유형을 각각 세분화하는 것이다. 즉 엘리트 유형과 정책 유형 각각의 ‘분류법(typology)’을 고안하는 것이다. 물론 이 각각의 분류법의 적실성은 개별 혹은 비교 사례 연구들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엘리트 유형과 정책 유형의 분류법을 상호 연결하는 것이다. 즉 특정 엘리트 변동과 정책 변화의 세부 유형을 서로 매칭하는 것이다. 이는 주되게 귀납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그 적실성을 검증하고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전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엘리트 변동과 정책 변화간의 상관관계의 구체적인 동학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³⁾

이 연구는, 첫 번째 단계에서 특정 국가의 엘리트 변동에 대한 적용을 통해 유형법의 적실성을 검증하는 부분에 속한다. 즉 중국의 1982년부터 2022년까지의 개혁·개방기를 사례로, 그 엘리트 변동을 추적한다. 분류법은 여러 기존 연구에서 일정하게 검증된 ‘통합, 분화, 순환의 방식, 순환의 폭’을 기준으로 삼은 ‘4차원적 엘리트 분류법’을 사용한다.⁴⁾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라는 동일한 특성을 가진 최신

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32집 1호,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20, pp.27-54; 정시구,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대 세습체제에 대한 대북정책 변화 고찰」, 『한국행정사학회』 제54집, 한국행정사학회, 2022, pp.21-47.

3) 이 같은 문제의식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장환, 「엘리트 변동과 정책 변화: 중국 후진타오와 시진핑 집권기에 대한 사례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제41권 4호, 한국세계지역학회, 2023, pp.40-42를 참조 바람.

4) 중국 정치 엘리트 변동과 관련한 연구들은 크게 ‘개념 중심’과 ‘분석틀 중심’ 접근으로 나눌 수 있고, 이 연구는 후자에 속한다. 이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장환, 「중국 정치 엘리트 유형 변화에 관한 연구: 제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중국지역연구』 제10권 3호, 중국지역학회, 2023, pp.223-226을 참조 바람.

중국의 엘리트 변동의 특성을 정식화할 수 있다. 특히 엘리트 분류법 중 가장 세분화된 4차원적 분류법을 적용함으로써 중국 엘리트 변동의 미세 사항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 성과들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그 유용성이 돌출될 것이다. 즉 2배율과 4배율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나타나는 차이를 유사하게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⁵⁾ 또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약 40년간의 기간에 중국 엘리트 변동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축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추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후에 진행될 소·중·대 시기 정책 변화와 매칭 할 중요한 비교대상을 획득할 수 있다. 둘째, 분석틀에 의한 유형 변화를 분석할 때 가장 난해한 부분은 출발점을 설정하는 것이다. 즉 이 출발점을 기준으로 각각의 변수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이 출발점의 특성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다면, 엘리트 변동의 방향에 대한 분석력은 급격하게 저하될 것이다. 따라서 자타가 공인하는 상이한 체제의 분기점을 출발점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전 시기와 분명히 구분되는 중국의 개방·개방기를 즉 1982년부터 2022년까지를 그 범위로 설정한 이 연구는 출발점의 설정에서 그 설득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체제적 특성이 비교적 균질한 시기의 엘리트 유형 변동을 중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그 전체적인 추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최근 시진핑 집권 3기를 이후 진행 중인 중국 엘리트 정치의 ‘질적’ 변화 여부와 관련된 논쟁에 대해서도 실증적 차원에서

5) 기존 연구 성과들은 대부분 2차원적 엘리트 유형법에 의거한 것이다. 그 주요한 것 들로는 黃信豪, 「改革開放時期中共黨政精英的結構與輪替: 回顧與前瞻」, 徐斯勒, 陳德升 主編, 『中共十八大政治繼承: 持續, 變遷與挑戰』, 新北: 印刻文學生活雜誌出版有限公司, 2012, pp.29-56; Joo, JangHwan, "A Typology of Political Elites and Its Transformation in China: From Ideocratic/Replacement to Fragmented/ Reproductive Elites", *Asian Perspective* Vol. 37, No. 2, 2013, pp.255-279; 주장환, 「중국 정치 엘리트 유형 변화에 대한 연구: 제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7권 제3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2013, pp.101-126; 주장환, 「중국 정치 엘리트 유형 변화에 관한 연구: 제19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5권 3호, 국제지역학회, 2021, pp.203-221 등이 있음.

일정한 실마리를 던져줄 것으로 예상된다.⁶⁾

이 연구는 제2장에서 연구 방법과 대상 그리고 기본적인 논리와 분석틀 등의 연구 설계의 내용을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이 연구 설계안에 따라 개혁·개방기 중국 엘리트 변동을 통시적으로 분석하고, 각 시기를 비교한다. 결론에서는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고, 그 학술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II. 연구 설계

이 연구의 기본 취지는 보편성의 차원에서 특수성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즉 보편성이라는 의미는 전 세계 각국에 통용될 수 있는 엘리트 변동에 대한 분석틀을 고안하고 이를 측정의 잣대로 삼는다는 의미이다. 또 특수성은 개별국가의 특정 시기의 변화를 살펴본다는 뜻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연구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결합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중국 엘리트 정치 연구에서는 이 두 경향이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있었기에 이 두 경향의 결합의 의미는 상당하다고 사료된다.⁷⁾ 따라서 본 연구의 가치는 분석틀의 보편성과 구체적인 측정 변수가 얼마나 중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느냐에 따라 평가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석틀과 측정 잣대 하에

-
- 6) 구체적으로 개혁·개방기의 집단지도체제에서 다른 특성을 가진 체제로의 변화 여부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장환, 「중국, 기술관료 시대의 채도래: 특징, 배경 및 함의」, 『중국연구』 제98권,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2024, p.128을 참조 바람.
- 7) 전자는 주로 특정 분석틀을 활용하는 것이고, 후자는 주로 중국에만 사용가능한 특정 개념을 통해 정치 엘리트의 변화를 분석한 것들이다. 각각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Geddes, B., Wright, J., and Frantz, E., *How Dictatorships Work: Power, Personalization, and Collap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pp.25-43; Joo, Jang Hwan, "The Second Transition of Political Elites in China: A Response to National Crisis", *Crisisnomy* Vol.13, No. 7, 2013, pp.143-155 등을 들 수 있음.

서 진행된다. 우선 분석들은 전 세계 엘리트 변동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고안된 ‘통합, 분화, 순환의 방식, 순환의 폭을 기준으로 한 엘리트 분류법’을 사용한다. 이 4차원적 유형법은 통합(unity), 분화(differentiation), 순환의 방식(mode of circulation) 그리고 순환의 범위(scope of circulation) 등 4가지 차원에서 엘리트의 유형을 구분한 분석틀로써 현재 수준에서 가장 최신이며 또 가장 세분화된 유형법으로 평가받고 있다.⁸⁾(그림 1) 참조)

다음으로, 각 차원에서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법들이 동원된다.⁹⁾ 첫째, 통합의 측면에서는 세 가지 변수로 측정이 진행된다. 하나의 변수는 국가의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엘리트 네트워크의 크기이다. 다른 하나는 엘리트의 행위 준칙이라 할 수 있는 공식 이데올로기와 가치의 정량적 수량이다. 마지막 하나는 상기 공식 이데올로기와 가치의 정성적 영향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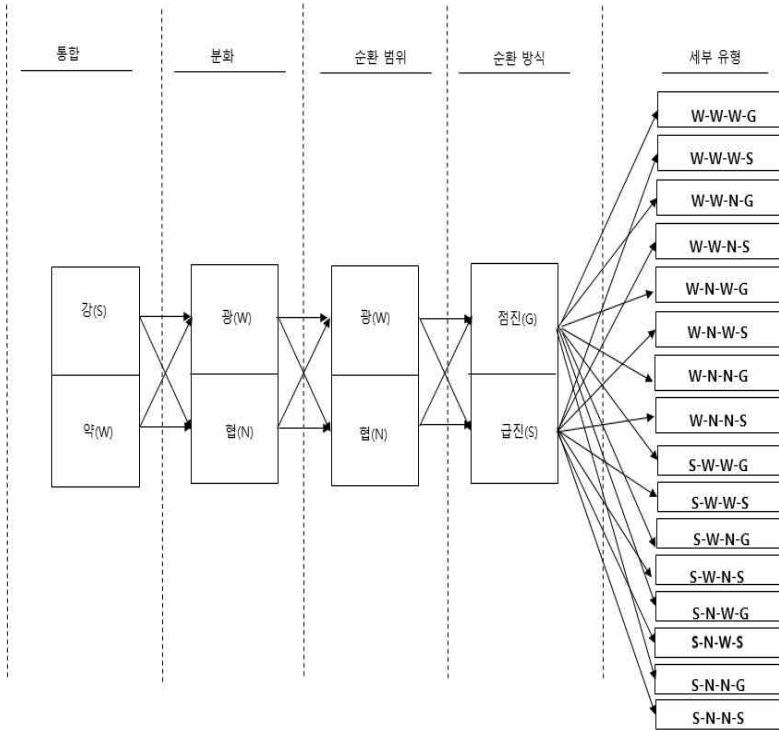
둘째, 분화의 차원에서는 기실 여러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6개의 변수로 측정을 시도한다. 그것은 바로 성별, 출신 민족, 주요 경력, 선택 전공, 출신 지역, 주요 근무 지역 등의 변수이다. 특히 성별을 제외하는 다른 변수들은 ‘이질성 지수(heterogeneity index)’를 통해 측정이 가능하다.

셋째, 순환의 범위 차원이다. 이 차원에서의 변수는 상술한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있는 엘리트의 교체율로써 정성적인 방법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넷째, 순환의 방식 차원에서의 변수는 엘리트 승계, 순환 그리고 배치와 관련된 공식 및 비공식 제도와 규범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면, 총 3차원에서 11개 변수에 대한

8) 이 유형법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장환, 「경제 정책 변화와 엘리트 변동: 중국 후진타오와 시진핑 집권기를 사례로」, 『국가안보와 전략』 제24권 2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4, pp.163-165를 참조 바람.

9) 이들 변수와 측정 방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장환, 「시진핑 집권기, 정치 엘리트 유형 변화: 4차원적 분류법의 적용」, 『중소연구』 제47권 3호, 한양대아태지역연구센터, 2023, pp.15-22를 참조 바람.

측정을 통해 해당 시기 엘리트 유형에 대한 좌표 설정이 가능하다.



[그림 1] 통합, 분화와 순환의 방식, 순환의 범위에 따른 4차원적 엘리트 유형법

한편 이 연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시기적으로 1982년에서 2022년까지의 약 40여년이다. 이는 다르게 말해서, 제12기에서 20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구성 시기이고, 중국식 체법에 따르면 ‘개혁·개방기’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중국의 정치 엘리트를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정 및 후보위원으로 설정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건국이후 줄곧 ‘당-국가(party-state)’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일한 집권당이 공산당이 사실상 국가 운영에 있어서도 그

전일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특히 정량 방법을 구사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연구에서 활용되어 그 객관성을 검증받은 <중국 정치 엘리트 데이터베이스(1921~2022)>를 사용한다. 여기에는 1921년 중국 공산당 창당에서부터 2022년 제20기까지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의 인구 통계 및 정치사회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총 샘플 수는 현재 기준 2,396명이다.¹⁰⁾

III. 개혁·개방기 중국 엘리트 변동에 대한 통시 비교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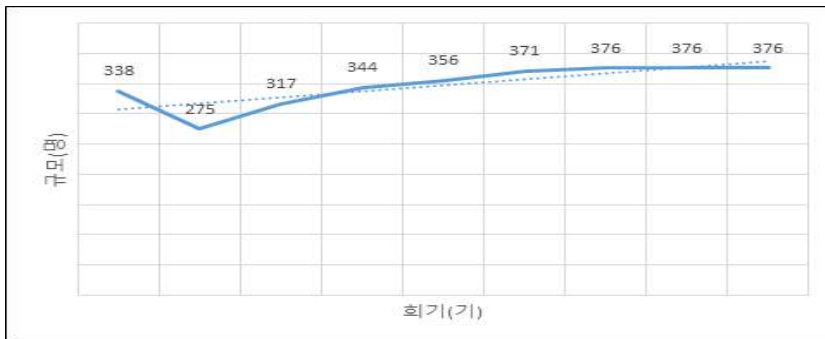
이하에서는 제 II장에서 밝힌 연구 설계에 따라 중국 개혁·개방기 정치 엘리트 변동에 대한 통시적 비교 분석을 진행한다. 순서는 상술한 바대로 통합, 분화, 순환의 범위 그리고 순환의 방식 순이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의 대상이 되는 초기 형태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는 변화의 추이와 그 특징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기에 이 부분은 더욱 중요하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본 연구의 초기 형태인 제12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유형은 ‘W-W-N-G’이다.¹¹⁾ 즉 통합 정도는 이전 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분화의 정도는 이전보다 크며, 순환의 범위는 이전보다 좁으며, 순환의 방식은 점진적으로 변화한 유형이다.

10)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장환, 앞의 논문, p.14를 참조 바람. 또 연구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현재 구축되어 있는 중국 엘리트 관련 데이터베이스 중 비교적 공신력이 높은 <Eurasia Elite DB>(http://www.hei.re.kr/HANSHIN/library/db/CN)와의 비교 검토를 진행했음.

11) 주장환, 앞의 논문, 2013.

1. 통합

4차원적 엘리트 유형법의 첫 번째 차원은 ‘통합’이다. 또 이 차원의 측정 변수는 엘리트 네트워크의 크기, 엘리트 행위 준칙의 수량 그리고 엘리트 행위 준칙의 특징 등 3가지이다. 이 세 변수에 대한 제12기에서 20기까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상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엘리트 네트워크의 크기이다. 본 연구에서의 정책 결정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엘리트 네트워크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가리킨다. [그림 2]는 제12기에서 제20기까지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제12~20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규모 변화>

자료: 中国共产党历次全国代表大会数据库(<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index.html>)의 내용을 필자가 정리한 것임.

[그림 2]에 따르면, 통합 차원의 엘리트 네트워크 변수에서는 제12기에서 20기까지 각 회기별로 일정한 변동을 나타냈다. 그러나 점선으로 표시된 추세선을 통해 봤을 때, 전반적으로 완만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통합 차원의 제2변수인 엘리트 행위 준칙의 개수이다. 본 연구에서 중국 엘리트의 행위 준칙은 공산당의 지도사상으로 설정한다.¹²⁾ 이렇

게 봤을 때, 본 연구의 분석 시기 중국 공산당의 지도 사상의 수량 변화는 <표 1>과 같다.

<표 1> 제12~20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시기 지도사상의 변화

지도사상 명	수량(개)	당 대회(회기)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	15
상동+3개 대표사상	4	16
상동+과학적 발전관	5	18
상동+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 (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	6	19

자료: 中国共产党历次全国代表大会数据库(<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index.htm>)의 내용을 필자가 정리한 것임.

<표 1>에 따르면, 본 연구의 분석 시기, 중국 공산당의 지도사상은 최고지도자의 교체에 따라, 순차적으로 그 수량이 증가되었다. 특이한 점은 최고지도자의 교체에 따라, 특정 지도사상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삽입된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정량적으로 통합 수준이 약화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복수의 지도사상이 존재할 경우에 한정되어 특정 지도사상의 영향력의 변화를 평가해볼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하는 지점은 지도사상 삽입과 관련된 관례의 측면이다. <표 1>에 따르면,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사상 그리고 과학적 발전관은 각각 역대 최고 지도자였던 덩샤오핑, 장쩌민(江澤民) 그리고 후진타오(胡錦濤)가 제출한 지도사상이었다.¹³⁾

- 12) 공산당의 지도사상이 중국 정치 엘리트의 행위 준칙이 될 수밖에 없는 보다 상세한 사항은 임규섭, 「장쩌민 시대 중국공산당 이데올로기의 재건: 삼개대표론 형성 및 그 의의」, 『아태연구』 제13권 1호, 국제지역연구원, 2006, pp.25-47을 참조 바람.
- 13) 이들 각각의 사상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전홍석, 「사회주의의 중국화와 덩샤오핑이론: 중국식 발전모델의 혁명사, 문화사적 독해」, 『한중관계』 제7권 2호, 한중관계연구원, 2021, pp.165-189; 이재호, 「후진타오시대 중국정부의 정책방향: 삼개대표중요사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8권 2호, 한국행정학회, 2004, pp.225-243; 이남주, 「개혁개방 신시대와 시진핑 사상후진타오시대 중국정부의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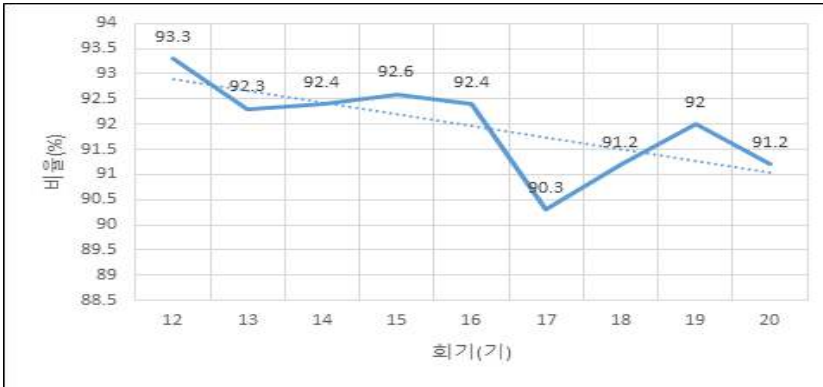
또 이것들이 지도사상으로 삼입된 시기는 모두 정계 은퇴 직후 혹은 이후 등이었다.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의 지도사상은 일종의 예외의 차원에서 직전 최고지도자가 제출한 사상을 은퇴와 더불어 그 격을 당장(黨章)의 총강(總綱)에 삼입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종의 ‘의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이후 그 상황은 달라졌다. 이전의 관례와는 달리 더 빨라진 집권 2기에 이미 당장의 총강에 삼입되었고, 정계 은퇴한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최고지도자 직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행위 준칙으로서의 지도사상의 영향력은 이전 3개보다 시진핑 사상이 더욱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이 결과는 논리적으로 시진핑 집권 이후 통합의 정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과 연결된다.

통합 차원의 세 가지 변수의 분석 결과는 다소 상호 불일치하게 나타났다. 즉 정량적인 변수 두 개는 모두 통합의 정도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그러나 정성적인 변수 한 개는 역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최신의 추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인다. <그림2>와 <표1>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정량 변수의 변화는 크지 않으나, 정성 변수의 변화가 상당히 큰 폭으로 관찰되는 바, 추세 상 통합의 정도는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분화

분화 차원에서는 모두 6개 변수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통해 그 추이를 확인한다. 성별 분포의 측면은 [그림 3]에서 그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다.

책방향: 삼개대표중요사상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제103호,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8, pp.303-335 등을 참조 바람.



[그림 3] 제12~20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남성 비중 변화>

자료: 中国共产党历次全国代表大会数据库(<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index.htm>)의 내용을 필자가 정리한 것임.

즉 각 회기 중앙위원회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살펴봤을 때, 매 회기 그 변화가 다소 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점선으로 표시된 추세선을 근거로 들었을 때 상당한 정도로 남성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는 역으로 성별 차원에서의 분화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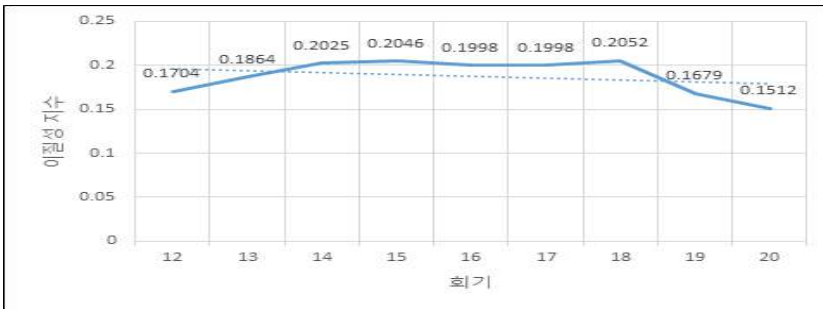
한편 출신 민족, 주요 경력, 선택 전공, 출신 지역, 주요 근무 지역 등 변수에 대한 측정은 이질성 지수를 활용한다.¹⁴⁾ 이 이질성 지수와 분화의 정도는 비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주요 경력, 선택 전공, 출신 지역, 주요 근무 지역 등의 변수는 중국 엘리트 정치에서 ‘파벌(faction)’의 핵심 구성 요소로써 부각되어온 것 들이다.¹⁵⁾ 또 이들 변수들은 중국 정치

14)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이질성 지수는 Blau Index 라고도 불리우며, 이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사항은 Blau, M. P., “A Macrosociological Theory of Social Structur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3, No. 1, 1977, pp.26-54.을 참조 바람.

15) 중국 엘리트 정치에서 대표적인 파벌이었던 상하이방(上海幫)은 주요 근무지역을 중심으로, 환파이(團派)는 주요 경력을 중심으로, 시파이(習派)는 주요 근무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됨. 이들 파벌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최지영,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집단지도체제와 파벌연구: 시진핑 시기 변화와 함의를 중심으로」, 『동북아

엘리트의 ‘개념적 유형(conceptual type)’의 구분에도 매우 중요한 잣대로 활용되는 것들이다.¹⁶⁾

[그림 4]는 출신 민족 차원에서의 이질성 지수의 변화이다. 참고로 출신 민족은 다수 민족인 한(漢)족외 30개의 소수 민족이다.¹⁷⁾



[그림 4] 제12~20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출신 민족 이질성 변화>

자료: 中国共产党历次全国代表大会数据库(<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index.html>)의 내용을 필자가 정리한 것임.

이 [그림 4] 중 특히 그 추세선에 따르면 중국 정치 엘리트의 출신 민족 차원에서의 이질성 지수는 완만하게 낮아지고 있다. 즉 이 측면에서의 분화의 정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이 시기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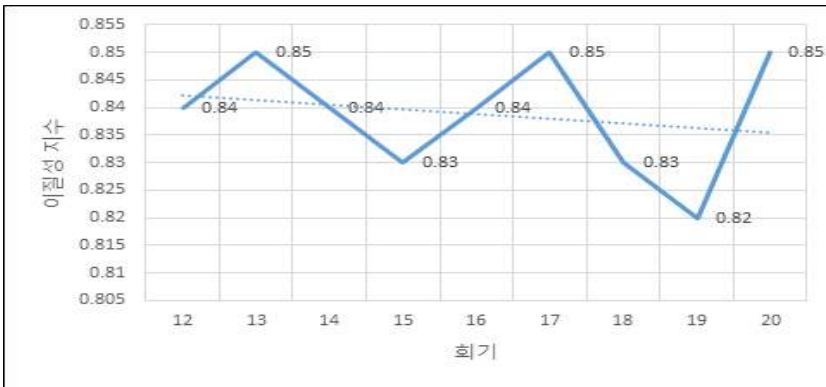
[그림 5]는 주요 경력 측면에서의 이질성 지수의 변화를 나타낸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주요 경력은 정치 엘리트 즉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구성

논총』 제22권 1호, 한국동북아학회, 2017, pp.5-27 등을 참조 바람.

16) 대표적으로 ‘기술관료(technocrats)’와 ‘일반간부(generalist cadre)’ 등을 들 수 있음. 이들 개념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장환, 「중국, 기술관료 시대의 재도래: 특징, 배경 및 함의」, 『중국연구』 제98호,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2024, pp.127-147 등을 참조 바람.

17) 참고로 중국의 공식 소수민족의 개수는 55개임.

원으로 정치적으로 성장하기 전의 경력을 의미한다. 또 이를 모두 10개로 세분화하였다.¹⁸⁾ 한편 이 그림에 따르면 이 측면에서 매 회기마다 다소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추세선에 따르면 역시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이질성 지수가 낮아지고 있다. 이것은 이 측면에서의 분화의 정도 역시 이 전시기에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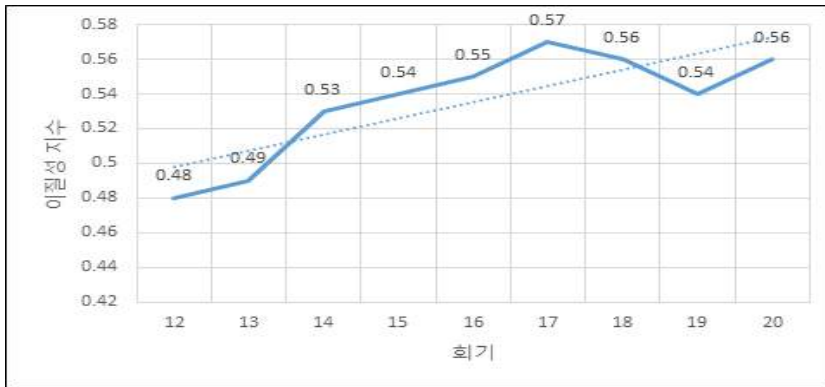
[그림 5] 제12~20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요 경력 이질성 변화>

자료: 中国共产党历次全国代表大会数据库(<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index.htm>)의 내용을 필자가 정리한 것임.

[그림 6]은 전문대 이상 수준의 학위 과정에서 선택한 전공 차원에서의 이질성 지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참고로 이 분야에서의 유형은 자연 및 응용과학, 인문 및 사회과학, 군사학 그리고 기타 등 4개이다. 이 그림에 따르면, 각 회기별로 다소 불규칙한 변화를 나타냈다. 그러나 전 시기에 걸쳐서 나타난 추세선은 상술한 두 개의 변수에서와는 달리 상당한 수준으로 우상향 즉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 측면에서 분화의 정도는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추세는 어느 특정 전공 출신자들이

18) 세분화된 주요 경력의 범주는 기술자, 정부의 산업 부문, 정부의 경제 및 재정 부문, 당무, 정부의 산업과 경제 및 재정을 제외한 부문, 교육, 연구, 군대, 군중조직 그리고 기타 등임.

상대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나타난 중국의 개념적 유형으로서의 주도 엘리트 유형 변화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된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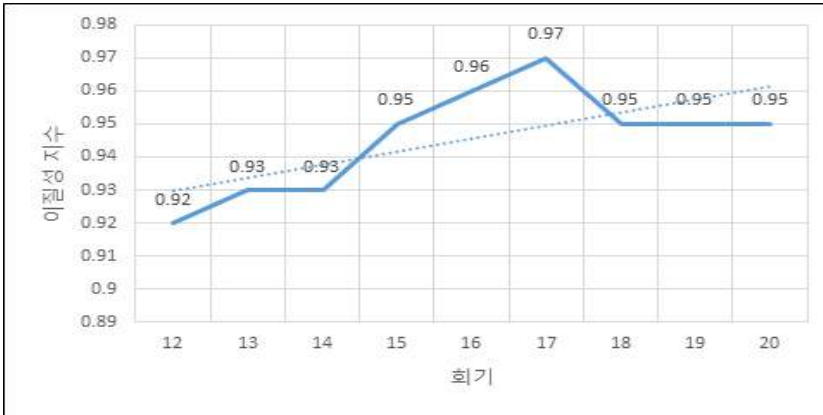


[그림 6] 제12~20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선택 전공 이질성 변화>

자료: 中国共产党历次全国代表大会数据库(<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index.htm>)의 내용을 필자가 정리한 것임.

[그림 7]은 이 시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구성원의 출신 지역 차원에서 이질성 지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출신 지역을 3개의 직할시, 31개의 성급 지역 등 모두 34개로 구분했다. 이 그림에 따르면 각 회기별로 일정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2기부터 20기까지의 전 시기를 추세로 보면, 추세선에서 알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이 측면에서의 분화의 정도가 강화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19) 참고로 이 측면에서 이 시기 중국의 주도 엘리트 유형은 기술관료에서 일반간부로 또 기술관료로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의 이 같은 변화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임진희,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기술관료 시대로의 회귀인가?」, 『한중사회과학연구』 제22권 2호, 한중사회과학회, 2024, pp.9-28등을 참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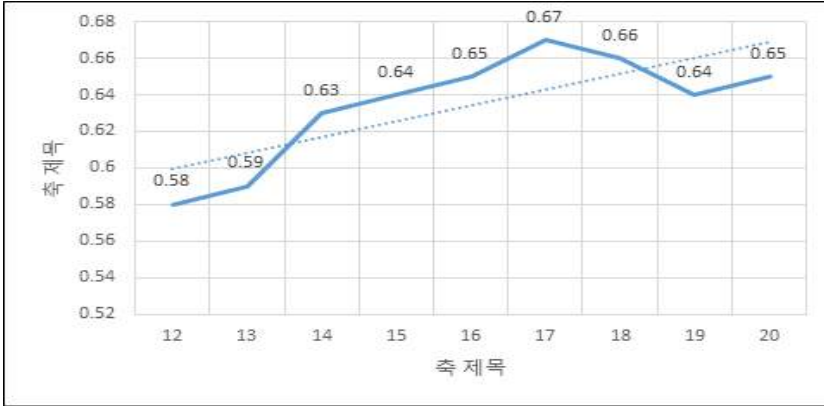


[그림 7] 제12~20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출신 지역 이질성 변화>

자료: 中国共产党历次全国代表大会数据库(<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index.html>)의 내용을 필자가 정리한 것임.

[그림 8]은 주요 근무지역 차원에서의 분화의 정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주요 근무 지역은 중국 정치 엘리트들이 중앙위원회 구성원으로 선출되기 전에 주되게 근무했던 지역을 의미한다. 또 본 연구에서는 연해, 내륙, 교차 지역 근무 그리고 기타로 구분했다.²⁰⁾ 그 결과, 이 그림에 따르면 역시 각 회기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추세선을 근거로 보면, 제12에서 20기 중앙위원회 회기 기간 동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주요 근무 지역 차원에서의 분화 정도는 강화되는 추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20) 이 주요 근무 지역 역시 중국 정치 엘리트를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참고로 특정 지역에서의 근무 경험과 실적은 승진과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고, 그 특징은 최고 지도자의 집권 시기를 매개로 변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유은하, 「중국 시진핑 시기 엘리트 정치와 중앙-지방관계: 후진타오 집권기와 비교를 중심으로」, 『분석과 대안』 제7권 2호, 코리아 컨센서스연구원, 2023, pp.61-84를 참조 바람.



[그림 8] 제12~20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요 근무 지역 이질성 변화>

자료: 中国共产党历次全国代表大会数据库(<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index.html>)의 내용을 필자가 정리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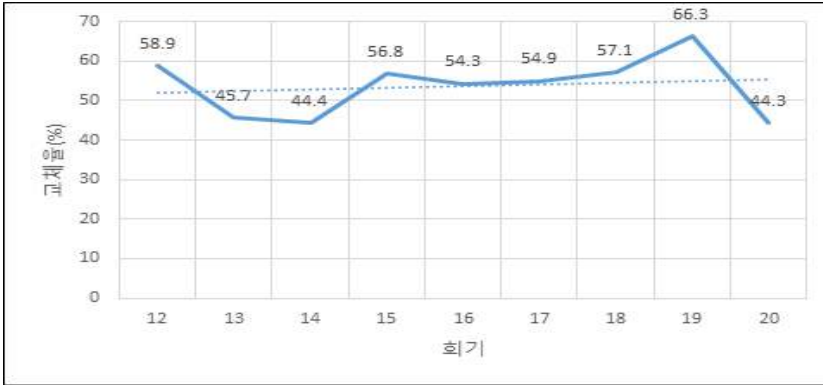
종합하면, 분화의 차원에서 측정 결과 각 변수별로 다소 엇갈리는 결과가 나타났다. 출신민족과 주요 경력 등의 두 변수의 측면에서는 분화 정도가 다소 약화되었다. 반면 성별, 선택 진공, 출신 지역, 주요 근무지역 등 네 변수의 측면에서 분화정도는 다소 강화되었다. 그러나 추세선의 기울기와 약화 및 강화 추세를 보인 변수의 개수 비중 등을 근거로 했을 때, 이 전체 시기의 분화의 정도는 강화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3. 순환

순환 차원에서 본 연구는 두 개의 변수를 통해 그 정도의 변화 추이를 평가한다. 그 두 개의 변수는 바로 순환의 범위와 그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순환의 범위는 본 연구에서 매 회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정위원을 기준으로 한 교체율을 기준으로 삼는다. 순환의 방식은 엘리트 승계, 순환 그리고 배치와 관련된 공식 및 비공식 제도와 규범의 제도화의 수준을

정성적으로 비교분석한다.

먼저, 순환의 범위에 대한 상황은 [그림 9]가 나타내고 있다.



[그림 9] 제12~20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교체율 변화>

자료: 中国共产党历次全国代表大会数据库(<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index.html>)의 내용을 필자가 정리한 것임.

이 [그림 9]에 따르면, 1982년부터 2022년까지의 약 40년의 기간에서 중국 정치 엘리트의 순환의 범위는 각 회기별로 상당히 큰 폭의 변화를 나타냈다. 그러나 그 추세를 살펴보면, 매우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미세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순환의 범위는 넓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음으로, 순환의 방식이다. 이 부분은 주로 엘리트 승계와 배치와 관련된 제도화를 살펴본다. 이 40여년 간의 이 분야의 제도화와 관련되어서는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바로 시진핑 집권 이전과 이후 시기이다. 시진핑 집권 이전 시기는 제12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부터 점차 엘리트 승계와 배치와 관련된 제도화가 점차 구체화되고 진전되는 시기로 특징 지을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개혁·개방기 들어 확립된 중국 엘리트 정치의 ‘집단지도체제(collective leadership system)’의 변화이다. 주지

하는 바와 같이, 중국은 제12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했고, 이의 엘리트 정치 차원에서의 담보는 바로 집단지도체제였다. 즉 마오쩌둥 집권 시기 1인지배 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당내 파벌간의 협력과 경쟁의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과두제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of Oligarchy)’를 꾀해왔다. 덩샤오핑(鄧小平)에 의해 도입된 이 공식 및 비공식 제도는 그 이후 최고 지도자인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집권 시기를 거치면서 안착되었다. 그 결과는 이 개혁·개방 시기 장쩌민, 후진타오 그리고 시진핑 등 최고지도자의 평화롭게 안정적인 권력교체였다.²¹⁾

그러나 시진핑이 집권 2012년 제17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시기부터 이런 제도화에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이다. 그 대표적인 예는 그가 2022년 제20기 중앙위원회에서 당 총서기직을 3연임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민주추천회(民主推薦會)의 성격 변화,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복수 파벌 구성, 직급별 정계 은퇴 연령 제한, 최고 지도부의 격대지정(隔代指定), 최초 지도자의 통치 이념 당장 삼입 시기,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홀수 구성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²²⁾ 따라서 이 시기 중국 엘리트 정치의 순환의 방식은 시진핑 집권을 기점으로 점진보다는 급진적으로 점차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21) 이 같은 과두제의 제도화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장환, 「덩샤오핑 이후 시기 중국 엘리트 정치: ‘과두제의 제도화’로의 전환」, 『중소연구』 제35권 1호, 아태지역연구센터, 2011, pp.13-41 등을 참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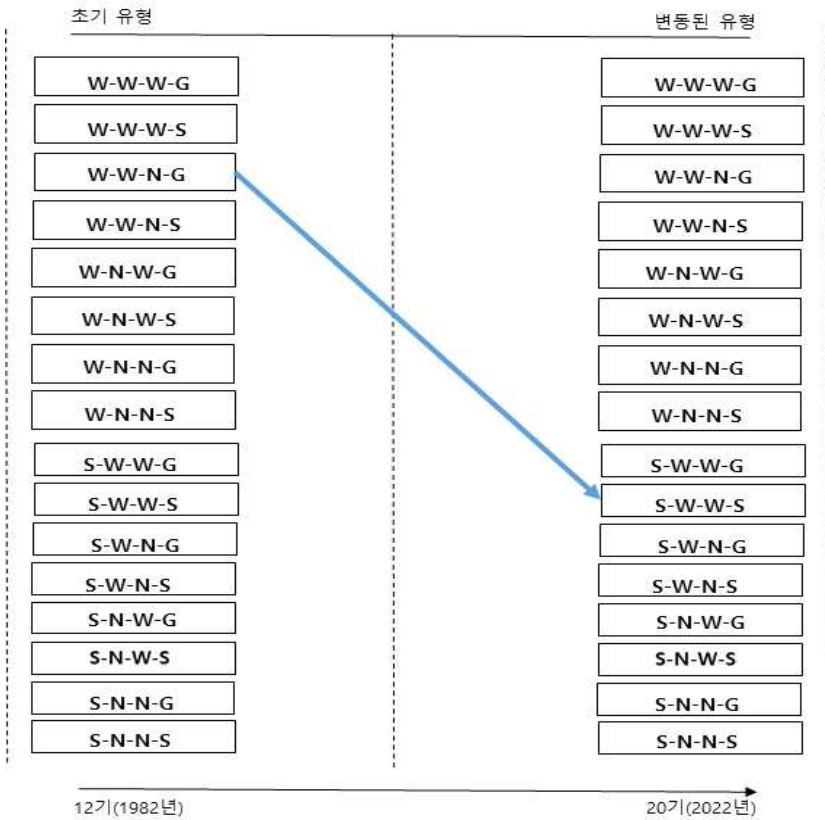
22) 이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장환, 「중국 엘리트 정치 동학의 변화?: 제19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제19권 3호, 현대중국학회, 2017, pp.87-120; 이지용, 「중국의 ‘권위주의 탄력성’ 요인 변화 분석: 제도적 탄력성에서 제도화된 전제정치로」, 『新亞細亞』 제29권 4호, 신아시아질서연구회, 2022, pp.5-40 등을 참조 바람.

IV. 나가며

본 연구는 1982년부터 2022년까지 약 40년간 중국 정치 엘리트 유형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통시적 비교를 진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구체적인 대상은 중국에서 대표적인 정치 엘리트로 자타가 공인하는 제12에서 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정과 후보 위원을 포함하는 그 구성원이다. 분석틀로는 ‘통합, 분화, 순환의 범위 그리고 순환의 방식’을 중심으로 한 4차원적 엘리트 유형법을 활용했다. 또 통시적 비교 분석의 초기 유형은 기존 연구 성과에 따른 결론을 토대로 통합의 정도는 이전 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분화의 정도는 이전 보다 크며, 순환의 범위는 이전보다 좁으며 순환의 방식은 점진적으로 변화한 ‘W-W-N-G’형으로 설정되었다.

분석 결과, 정치 엘리트 네트워크의 규모, 정치 엘리트 행위 준칙의 수량 그리고 특정 지도 사상의 영향력 등 세 변수로 구성된 통합의 차원에서 그 정도는 일정하게 강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분화의 차원에서는 성별 분포, 출신 민족, 주요 경력, 선택 전공, 출신 지역, 주요 근무 지역 등 여섯 가지 변수를 측정했다. 전반적으로 각 변수마다 다소 엇갈리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세 상 분화의 정도는 강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각 회기 중앙위원회 구성원의 교체비율을 변수로 하는 순환의 범위 차원에서는 그 정도가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엘리트 승계와 배치와 관련된 제도화를 그 변수로 하는 순환의 방식 차원에서는 점차 급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봤을 때, 중국 정치 엘리트는 1982년 ‘W-W-N-G’형에서 중간에 부침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2022년에 각 차원에서 모두 초기 유형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강한 통합 정도와 넓어진 분화 정도 그리고 넓어진 순환의 범위와 더 급진적인 순환의 방식을 가진 ‘S-W-W-S’형으로 변동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10]은 이 같은 내용을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10] 제12~20기 중국 정치 엘리트 유형 변동

그렇다면 이 같은 결과가 가지는 학술적 함의와 이에 기반한 향후 연구 과제는 무엇인가? 먼저, 이 연구는 서론에서 밝혔듯이 경험적으로 확인된 엘리트 변동과 정책 변화간의 상관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맺어지는 지에 관한 이론화 작업의 일부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약 40여 년간의 정치 엘리트 유형 변동의 사례를 특정했다는 데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상술했듯이 향후 그 다음 단계로 구체적인 정책 유형법과의 결합을 통해 이 엘리트 유형 변동과 매칭되는 정책 변화의 사례를 특정해야 할 것이다.

또 이 연구 결과 확인된 40여년 기간 중국 정치 엘리트 변동의 방향은 기존 2차원적 유형법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써 그 자체로 실증적으로 4차원적 유형법의 현실 분석가능성을 검증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³⁾ 즉 2차원적 유형법에 비해 4차원적 유형법이 순환의 방식과 그 범위를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세부 유형의 수가 증가함으로써 이념과 실제의 일치성을 강화시켰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첫째, 장기간의 분석 기간을 추세선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했는데, 이를 넘어서는 보다 세밀한 측정의 논리가 필요하다. 또 본 연구에서는 한 차원 내에 복수의 변수가 존재하고, 그 변수들 간의 측정 결과 역시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럴 경우 해결 방안과 논리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유형법(typology)’을 통한 접근이 가지는 내생적인 문제점 중 하나가 유형 간 질적 변동에 대한 기준과 잣대의 설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즉 방향과 추세는 파악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또 어떻게 특정 방향으로 변화하고, 질적으로 다른 유형으로 변동되었는지에 대한 ‘임계점(critical point)’의 설정에 대한 향후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40여 년간의 시기를 비교 통시적 접근을 통해 고찰해본 결과, 중국 엘리트 정치 유형은 흡사 마오쩌둥 시기의 그것과 유사한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변화는 행위자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의 변화는 이런 행위자와 구조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이 연구가 도출한 결론의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 결론의 시사점은 ‘역사의 반복’, ‘전체주의의 회귀’ 등 학술적으로 엄밀하지 못한 개념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23) 2차원적 유형법의 세부유형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사항은 Higley, J. and Lengyel, G., eds., *Elites after Sate Socialism: Theories and Analysis*, Lanham, Boulder, New York, Oxfor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0, pp.10-13을 참조 바람.

이다. 오히려 선형적인 가치나 이념이 아닌 변화의 실재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각인하는 것이다.

(논문투고: 2024.10.29. 심사완료: 2024.12.14. 게재확정: 2024.12.19.)

참고문헌

- 남재걸, 김재일, 「역대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정부 혁신 비교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6권 3호, 한국공공관리학회, 2022.09.
- 유은하, 「중국 시진핑 시기 엘리트 정치와 중앙-지방관계: 후진타오 집권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분석과 대안』 제7권 2호,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2023, 10.
- 이가영, 「김정은 시기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경향성 연구: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32집 1호,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20.04.
- 이남주, 「개혁개방 신시대와 시진핑 사상후진타오시대 중국정부의 정책방향: 삼개대표중요사상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제103호,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8.09.
- 이은숙,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교육: 쟁점과 과제」, 『통일전략』 제26권 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23.09.
- 이재호, 「후진타오시대 중국정부의 정책방향: 삼개대표중요사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8권 2호, 한국행정학회, 2004.06.
- 이지용, 「중국의 '권위주의 탄력성' 요인 변화 분석: 제도적 탄력성에서 제도화된 전제정치로」, 『新亞細亞』 제29권 4호, 신아시아질서연구회, 2022, 12.
- 임규섭, 「장쩌민 시대 중국공산당 이데올로기의 재건: 삼개대표론 형성 및 그 의의」, 『아태연구』 제13권 1호, 국제지역연구원, 2006.03.
- 임진희,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기술관료 시대로의 회귀인가?」, 『한중사회과학연구』 제22권 2호, 한중사회과학학회, 2024.04.
- 전홍석, 「사회주의의 중국화와 덩샤오핑이론: 중국식 발전모델의 혁명사, 문화사적 독해」, 『한중관계』 제7권 2호, 한중관계연구원, 2021.06.
- 정시구,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대 세습체제'에 대한 대북정책 변화 고찰」, 『한국행정사학지』 제54집, 한국행정사학회, 2022.04.
- 주장환, 「덩샤오핑 이후 시기 중국 엘리트 정치: '과두제의 제도화'로의 전환」, 『중소연구』 제35권 1호, 아태지역연구센터, 2011.05.
- _____, 「중국 정치 엘리트 유형 변화에 대한 연구: 제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7권 제3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2013.11.

- _____, 「중국 엘리트 정치 동학의 변화?: 제19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제19권 3호, 현대중국학회, 2017, 12.
- _____, 「중국 정치 엘리트 유형 변화에 관한 연구: 제19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5권 3호, 국제지역학회, 2021.09.
- _____, 「중국 정치 엘리트 유형 변화에 관한 연구: 제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중국지역연구』 제10권 3호, 중국지역학회, 2023.08.
- _____, 「시진핑 집권기, 정치 엘리트 유형 변화: 4차원적 분류법의 적용」, 『중소연구』 제47권 3호, 한양대아태지역연구센터, 2023.11.
- _____, 「엘리트 변동과 정책 변화: 중국 후진타오와 시진핑 집권기에 대한 사례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제41권 4호, 한국세계지역학회, 2023.12.
- _____, 「중국, 기술관료 시대의 재도래: 특징, 배경 및 함의」, 『중국연구』 제98권,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2024.03.
- _____, 「경제 정책 변화와 엘리트 변동: 중국 후진타오와 시진핑 집권기를 사례로」, 『국가안보와 전략』 제24권 2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4.06.
- 최지영,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집단지도체제와 파벌연구: 시진핑 시기 변화와 함의를 중심으로」, 『동북아논총』 제22권 1호, 한국동북아학회, 2017.03.

黃信豪, 「改革開放時期中共黨政精英的結構與輪替: 回顧與前瞻」, 徐斯勒, 陳德升 主編, 『中共十八大政治繼承: 持續, 變遷與挑戰』, 新北: 印刻文學生活雜誌出版有限公司, 2012.

Blau, M. P., "A Macrosociological Theory of Social Structur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3, No. 1, 1977.

Geddes, B., Wright, J., and Frantz, E., *How Dictatorships Work: Power, Personalization, and Collap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Higley, J. and Lengyel, G., eds., *Elites after State Socialism: Theories and Analysis*, Lanham, Boulder, New York, Oxfor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0.

Joo, JangHwan, "The Second Transition of Political Elites in China: A Response to National Crisis", *Crisisnomy* Vol.13, No. 7, 2013.

_____, "A Typology of Political Elites and Its Transformation in China: From Ideocratic/Replacement to Fragmented/ Reproductive Elites", *Asian Perspective* Vol. 37, No. 2, 2013.

• 국문초록 •

이 연구는 1982년부터 2022년까지 약 40년간 중국 정치 엘리트 유형의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통시적 비교를 진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구체적인 대상은 중국에서 대표적인 정치 엘리트로 자타가 공인하는 제12에서 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정파 후보 위원을 포함하는 그 구성원이다. 분석틀로는 ‘통합, 분화, 순환의 범위 그리고 순환의 방식’을 중심으로 한 4차원적 엘리트 유형법을 활용했다. 또 통시적 비교 분석의 초기 유형은 기존 연구 성과에 따른 결론을 토대로 통합의 정도는 이전 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분화의 정도는 이전 보다 크며, 순환의 범위는 이전보다 좁으며 순환의 방식은 점진적으로 변화한 ‘W-W-N-G’형으로 설정되었다.

분석 결과, 정치 엘리트 네트워크의 규모, 정치 엘리트 행위 준칙의 수량 그리고 특정 지도 사상의 영향력 등 세 변수로 구성된 통합의 차원에서 그 정도는 일정하게 강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분화의 차원에서는 성별 분포, 출신 민족, 주요 경력, 선택 전공, 출신 지역, 주요 근무 지역 등 여섯 가지 변수를 측정했다. 전반적으로 각 변수마다 다소 엇갈리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세 상 분화의 정도는 강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각 회기 중앙위원회 구성원의 교체비율을 변수로 하는 순환의 범위 차원에서는 그 정도가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엘리트 승계와 배치와 관련된 제도화를 그 변수로 하는 순환의 방식 차원에서는 점차 급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봤을 때, 중국 정치 엘리트는 1982년 ‘W-W-N-G’형에서 중간에 부침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2022년에 각 차원에서 모두 초기 유형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강한 통합 정도와 넓어진 분화 정도 그리고 넓어진 순환의 범위와 더 급진적인 순환의 방식을 가진 ‘S-W-W-S’형으로 변동된 것으로 밝혀졌다.

주제어 : 중국, 정치 엘리트, 변동, 개혁개방기, 유형법

• Abstract •

Transformation of Political Elites Types During China's Reform and Open-up Period: A Diachronic Comparative Approach

Joo, Jang-hwan

This study was designed to conduct a diachronic comparison of how the types of Chinese political elites have changed over the past 40 years from 1982 to 2022. The specific target is the member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s Central Committee, including the regular and candidate members, who are recognized by everyone as representative political elites in China. As an analytical framework, we used a four-dimensional elite typology centered on "integration, differentiation, scope of circulation, and method of circulation." In addition, the initial type of diachronic comparative analysis was set as a "W-W-N-G" type based on the conclusions from previous research results, in which the degree of integration is relatively lower than before, the degree of differentiation is greater than before, the scope of circulation is narrower than before, and the method of circulation has gradually chang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degree of integration, which consists of three variables: the size of the political elite network, the number of political elite behavioral guidelines, and the influence of specific guiding ideologies, has been steadily strengthened. In the dimension of differentiation, six variables were measured: gender distribution, ethnic origin, major career, elective major, region of origin, and major work region. Overall, the results were somewhat mixed for each variable, but the degree of differentiation was nonetheless understood to have been strengthened based on the trend. In the dimension of the scope of circulation, which is a variable of the replacement rate of Central Committee members for each session, the degree has been widened. Finally, in the dimension of the method of circulation, which is a variable of the institutionalization related to elite succession and deployment, it is judged to have gradually become more radical.

Based on these results, it was revealed that China's political elite had changed from the "W-W-N-G" type in 1982 to the "S-W-W-S" type in 2022, which had a relatively stronger degree of integration, a wider degree of differentiation, a wider scope of circulation, and a more radical form of circulation in all dimensions compared to the initial type, although there were ups and downs in the middle.

Key word : China, Political Elites, Transformation, Open-Reform Era, Typology